

해외건설 인사이트 INSIGHT

2022 Vol.14

해외프로젝트 금융(PF) 3/4분기 동향 및 시사점

I. 글로벌 PF 시장 동향

II. 글로벌 PF 시장 시사점

붙임 1. 최근 10년간 글로벌 PF 시장 및 ENR 매출 현황

붙임 2. 중동지역 대규모 사업 현황 등

붙임 3. 최신 해외건설 보고서 소개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참여 연구원*의 주관적인 견해로, 해외건설협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작성자 : 정문빈 연구원(02-3406-1118, mbjeong@icak.or.kr)



I. 글로벌 PF 시장 동향¹⁾	1
- 글로벌 PF 시장(Loans+Bonds)	1
- 국제개발금융기관(DFI)의 PF 지원	6
 II. 글로벌 PF 시장 시사점	 8
 불임 1. 최근 10년간 글로벌 PF 시장 및 ENR 매출 현황	 11
불임 2. 중동지역 대규모 사업 현황 등	12
불임 3. 최신 해외건설 보고서 소개	15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PFI에서 발표한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First Nine Months 2022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요약정리하였고, 그 내용을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했음



- ▶ (배경 및 목적) 해외건설 위기 요인으로 꼽히는 수주액 감소·수익성 악화 등 극복을 위해 분기/연도별 글로벌 PF²⁾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고 플랜트 등 대규모 해외건설프로젝트 수주³⁾ 및 시공사금융주선·투자개발형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해외건설시장의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해외 PF 동향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글로벌 PF 동향

- '22년 3분기까지 PF 시장(대출+채권) 규모는 2,730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함
- PF 대출은 2,401억불로 오일&가스, 전자통신 공종 관련 프로젝트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84% 증가함
- PF 채권은 329억불로 전년동기대비 40.2%가 감소하며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EMEA 지역은 유일하게 성장(△5%)함
- 국제개발금융기관(DFI)의 PF 지원은 80.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41.9% 감소함

□ 시사점

- COVID-19 이후 반등한 PF 시장의 성장세는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역기저효과에 따라 감소함
-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정 공종 중심으로 PF가 집중됨. 또한, 추후 큰 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시장 관련 투자 및 수주 증가가 기대됨

2) PF(프로젝트 금융) : 미래의 현금흐름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의 자산, 권리 등을 담보로 하여 제공되는 프로젝트 금융임. '80년대, 원유개발사업 → '90년대, 개도국 인프라사업 → 현재, 인프라, 원유, 정유, 제조업,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장기 금융의 주요 조달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김채호, 2015)

3) 김상만(2011)은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특징으로 거액의 자금 및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1990년대 이후 PF 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을 수반하는 인프라, 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은 주로 PF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함

I 글로벌 PF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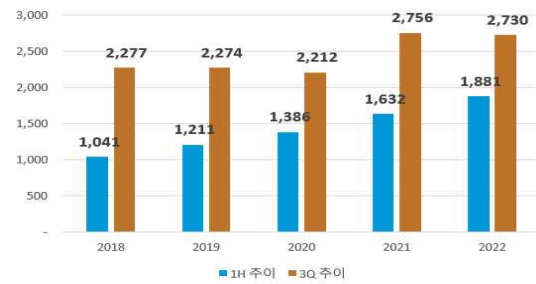
1. 글로벌 PF 시장(Loans+Bonds)

o (총괄)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이하 PFI)에 따르면, 2022년 3분기까지(이하 3Q)의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시장의 규모는 2,730억불을 기록하며 2021년 3Q 2,756억불 대비 0.9% 감소함

- 상반기까지 시장은 성장했으나($\Delta 15.3\%$, YoY), 3Q에는 PF 시장의 성장을 상승세가 감소함

【최근 5년 PF 시장 규모 및 증감(좌) 및 1H 및 3Q PF 시장 추이(우) (단위: 억불,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Q (1Y*)	2,277 (3,338)	2,274 (3,689)	2,212 (3,364)	2,756 (3,855)	2,730 (-)
증감	8.0	-0.1	-2.7	24.6	-0.9



주) 1Y PF 시장 규모를 참고로 제시함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PFI(2022)

o (대출(Loans)) '22년 3Q PF 대출의 규모는 2,401억불로 전년 동기(2,206억불) 대비 8.84% 증가함. 건수 기준으로는 677건에서 583건으로 94건 감소함

- 3Q Loan 시장의 증가세는 오일&가스(LNG 등), 전자통신(광통신망 등) 관련 프로젝트 증가에 기인함

【최근 5년간 3Q PF 대출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규모	1,987	1,937	1,876	2,206	2,401
건수	633	652	618	677	583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PFI(2022)

- o (대출 - 지역별)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이 1,036억불로 1위(43%), 미주지역이 890억불로 2위(37%), 아·태 지역이 475억불로 3위(20%)를 차지함
- (EMEA) '22년 3Q EMEA PF Loan 금액은 1,036억불로 전년동기의 1,152억불 대비 10.1% 감소
 - 서유럽(영, 독, 프 등)의 Loan 금액은 작년 534억불에서 680억불로 27% 증가하였고, 동유럽(러, 튀르키예 등)의 Loan 금액은 작년 222억불에서 58억불로 74% 감소함
 - 중동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Loan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46%가 감소하였으나 국가별 PF 대출 순위(이하 대출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함. UAE의 Loan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하며 대출 순위 8위를 차지함
- (미주) '22년 3Q 미주지역 PF Loan 금액은 890억불로 전년동기의 586억불 대비 51.9% 증가
 - 대출 순위 1위를 기록한 미국은 오일&가스 등 LNG 중심 PF를 성사시키며 전체 PF Loan의 28.4%에 달하는 681억불 규모의 재원을 조달함
- (아·태) '22년 3Q 아·태지역 PF Loan 금액은 474억불로 전년동기의 467억불 대비 1.7% 증가
 - 호주는 Pluto LNG 트레인, Ichthys LNG(리콴아낸싱) 등 프로젝트를 위해 전년동기대비 42%가 증가한 318억불 규모의 PF Loan을 성사시키며 대출 순위 2위를 차지함

['22년 3Q 지역별 Loans 전년 동기 비교 Table]

지역	2022년 3Q		2021년 3Q		증감률(%)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EMEA	1,036	43	1,152	52	-10.1
미주	890	37	586	26	51.9
아태	475	20	467	22	1.7
합계	2,401	100	2,205	100	-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3Q, PFI(2022)

【'22년 3Q 국가별 주요 PF 대출 순위】

순위	국가	규모(억불)	점유율(%)	사업 건수(개)	증감률(%)
1	미국	681	28.4	143	100
2	호주	318	13.2	50	42
3	사우디	172	7.2	4	-46
4	영국	157	6.5	25	45
5	독일	156	6.5	18	164
6	이태리	131	5.5	23	165
7	프랑스	85	3.5	45	-2
8	UAE	78	3.2	4	265
9	스페인	73	3.0	41	-13
10	인도	45	1.9	42	-31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3Q, PFI(2022)

o (대출 - 공종별) 발전이 808억불(33.6%)로 공종별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오일&가스가 590억불(24.6%), 전자통신 371억불(15.4%), 교통 369억불(15.4%), 레저 120억불(5.0%) 순으로 순위가 형성됨

- 오일&가스 부문의 Loan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41.5% 증가함.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전반적으로 PF 대출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또한, 전자통신 분야는 전년동기대비 142.5% 증가함. 영, 독, 이태리 등 다양한 유럽지역에서 광케이블, 데이터 센터 등의 신규·리파이낸싱 등 수요가 높아짐

【'22년 3Q 공종별 PF Loans 전년 동기 비교 Table】

공종	2022년 3Q		2021년 3Q		증감률(%)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발전	808	33.7	894	40.5	-9.6
오일&가스	590	24.6	417	18.9	41.5
전자통신	371	15.4	153	6.9	141.8
교통	369	15.4	300	13.6	23.0
레저	120	5.0	120	5.4	0.0
광산	73	3.0	48	2.2	52.1
석유화학	24	1.0	120	5.4	-80.8
산업	23	1.0	122	5.5	-81.1
상하수도	13	0.5	31	1.4	-58.1
폐기물처리	11	0.5	1	0	1000
농업	1	0	0	0	-
합계	2401	100	2206	100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PFI(2022)

o (대출 - 주간사별) 주간사별 1위는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으로 124억불의 PF 대출을 주선했. 인수기관별 1위는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Inc.으로 125억불의 PF 대출을 인수함

- 한국산업은행(KDB)은 35.1억불의 Loan 금액을 주간하며 24위를 차지함

【상위 대출 주간사(Mandate Arrangers) (단위:억불)】

순위	은행명	금액	건수
1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124	111
2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117	92
3	Societe General	95.4	73
4	Credit Agricole CIB	95.1	88
5	Santander Corp & Invest Bkg	84.5	71
6	ING	78.1	63
7	Mizuho Financial Group	72.3	59
8	BNP Paribas SA	71.0	47
9	Bank of China Ltd	55.3	38
10	Natixis	55.1	43
24	Korea Development Bank	35.1	21
합계		2,401	583

【상위 대출 인수기관(Bookrunners) (단위:억불)】

순위	은행명	금액	건수
1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125	59
2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96.7	77
3	Credit Agricole CIB	91.2	44
4	Societe General	82.2	34
5	Santander Corp & Invest Bkg	68.3	45
6	BNP Paribas SA	62.2	24
7	ING	59.1	30
8	Mizuho Financial Group	57.6	33
9	Natixis	42.7	27
10	BofA Securities Inc	40.3	20
11	CIBC World Markets Inc	34.9	20
합계		1,722	393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3Q, PFI(2022)

o (채권(Bonds)) Bonds 시장은 전년동기대비 40.2% 감소한 329억불을 기록함. 건수 기준으로는 70건에서 60건으로 10건 감소함

【최근 5년간 3Q PF 채권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규모	290	337	334	550	329
건수	53	43	36	70	60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PFI(2022)

o (채권 - 지역별) EMEA는 147억불(47.7%)을 기록하며 1위, 그 뒤를 미주지역이 132억불(40.1%)을 기록하며 2위, 아시아지역이 50억불(15.2%)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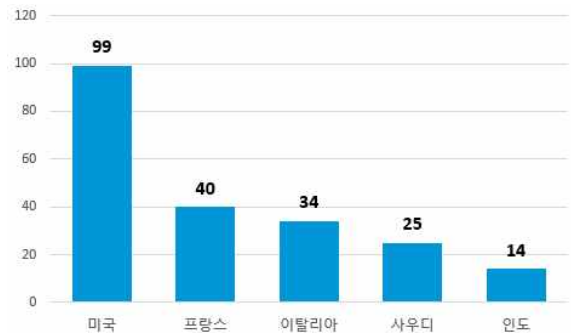
- EMEA는 유럽(이태리 등), 중동(사우디) 지역의 성장에 따라 지역 중 유일하게 성장(△5%)함

* 지역별 주요국 채권 등락 폭 : 1. EMEA(5%↑) - 프랑스(310%↑), 이탈리아(482%↑), 사우디(174%↑), 2. 미주(60%↓) - 미국(46%↓), 브라질(64↓), 3. 아시아지역(36%↓) - 인도(60%↓), 호주(61%↓)

- 미주지역 중 미국은 99억불의 PF 채권을 통해 보르스타 폴리에틸렌 플랜트(6.5억불), 얼라이언트 태양광 프로젝트(5.9억불), 인디애나 고속도로 프로젝트(5.8억불) 등 프로젝트에 PF Bond를 발행하며 작년에 이어 PF 채권 국가별 1위를 기록함

【최근 3년간 3Q PF 채권 지역별 변화 추이(좌) 및 상위 5개 국가(우) (단위 : 억불, %)】

구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금액	금액	금액	
EMEA	128	140	147	5.0
미주	179	332	132	-60.2
아시아	27	78	50	-35.9
합계	334	550	329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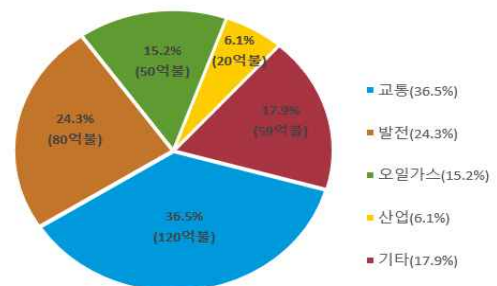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PFI(2022)

o (채권 - 공종별) 교통 분야 채권발행이 120억불(36.5%)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함. 그 뒤를 발전 분야가 80억불(24.3%)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오일&가스 (50억불, 15.2%), 산업설비(20억불, 6.1%) 등 순으로 구성됨

【'22년 3Q PF 채권 공종별 변화 추이(좌) 및 '22년 3Q 공종별 비중(우) (단위 : 억불, 건)】

구분	'22년		'21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발전	80	2	130	2
오일&가스	50	3	250	1
교통	120	1	80	3
석유화학	-	-	70	4
산업	20	4	-	-
기타	59	-	10	5
합계	329	-	540	-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PFI(2022)

- o (채권 - 발행사별) Credit Agricole CIB이 33.2억불(20건)로 1위를 차지함. 그 뒤를 JP Morgan(28.3억불, 17건),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24.0억불, 16건) 순으로 위치함

['22년 3Q 발행사별 Bonds League Table]

순위	회사 (전년 동기 순위)	금액 (억불)	비중(%)	건수
1	Credit Agricole CIB (10)	33.2	10.1	20
2	JP Morgan (1)	28.3	8.6	17
3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4)	24.0	7.3	16
4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5)	22.0	6.7	
5	Citi (2)	18.6	5.6	15
6	Goldman Sachs & Co (14)	16.7	5.1	9
7	BNP Paribas SA (21)	14.9	4.5	11
8	Mizuho Financial Group (6)	11.5	3.5	5
9	Societe Generale (9)	11.0	3.3	14
10	Barclays (19)	10.9	3.3	9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PFI(2022)

2. 국제개발금융기관(DFI)의 PF 지원

- o (총괄) '22년 3Q 국제개발금융기관(DFI)의 PF 지원은 개도국 및 선진국 대상 지원을 합쳐 총 80.6억불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41.9%가 감소함

【최근 3년간 DFI 3Q 지원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년		'21년		'22년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금액	97.8	36.3	98.4	40.4	23.2	57.4
총 투자액	134.1		138.8		80.6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PFI(2022)

- (개도국) 개도국 대상 PF 지원은 모두 직접대출로 지원되었으며 23.2억불이 지원됨. 개도국 대상 PF 지원 1위 기관은 IDB/IDB Invest가 차지함
- (선진국) 선진국 대상 PF 지원은 57억불이 직접대출, 0.4억불이 보증으로 지원되었으며 총 57.4억불이 지원됨. 선진국 대상 PF 지원 1위 기관은 EIB가 차지함

【'22년 3Q 개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좌) 및 선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우) (단위: 억불)】

순 위	기관명	직접 대출	보증	건 수
1	IDB/IDB Invest	5.0	-	2
2	DFC	5.0	-	1
3	CABEI	2.7	-	2
4	IADB	2.1	-	3
5	China Exim	2.1	-	3
6	BII	1.7	-	1
7	IFC/WB/MIGA/IBRD	1.1	-	1
8	EBRD	0.6	-	1
9	Kexim/K-sure	0.5	-	1
10	AIIB	0.4	-	1
11	DBSA	0.4	-	1
합계		23.2	-	25

순 위	기관명	직접 대출	보증	건 수
1	EIB	21	-	9
2	JBIC	17		2
3	Kexim/K-sure	16	-	3
4	EBRD	1.4	-	4
5	EKF	0.5	0.4	2
6	CEFC	0.3	-	1
합계		57	0.4	21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3Q, PFI(2022)

- 개도국 및 선진국 대상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 표와 같음

* PF 3Q 보고서에는 DFI의 PF 지원 주요 프로젝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1H 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함

【'22년 1H 개도국 대상(좌) 및 선진국 대상(우) 주요 프로젝트 (단위: 억불)】

프로젝트명	국가	DFI 기여금	참여 DFI
Santo Domingo 2C 메트로	도미니카 공화국	2.5	CABEI
160MW Dabar 수력발전	보스니아	2.1	China Exim
Puerto Antioquia 다목적 항구시설 PPP	콜롬비아	2	IDB Invest
Tigo Colombia 광통신망 확장	콜롬비아	1.5	IADB
Thar Surya 태양광발전	인도	1.4	IFC, AIIB , BII
San Jacinto Tizate 지열발전 프로젝트 페이지 1	니카라과	0.8	Proparco, DEG FMO

프로젝트명	국가	DFI 기여금	참여 DFI
CEGeLog Housing PPP Open Fiber	프랑스	5.3	EIB
100Mbps 광대역 네트워크	이탈리아	3.6	EIB
RV 555 Sotrasambandet 도로 PPP	노르웨이	2.2	Kexim
Sotra Connection PPP	노르웨이	2.2	Kexim
Solaria 태양광 플랜트	스페인	1.3	EIB
Golfe Du Lion 부유식 풍력발전	프랑스	1.1	EIB

주) 주요 프로젝트 순위는 DFI 기여금(DFI Involvement) 기준으로 작성함

* 출처: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1H, PFI(2022)

III 시사점

1.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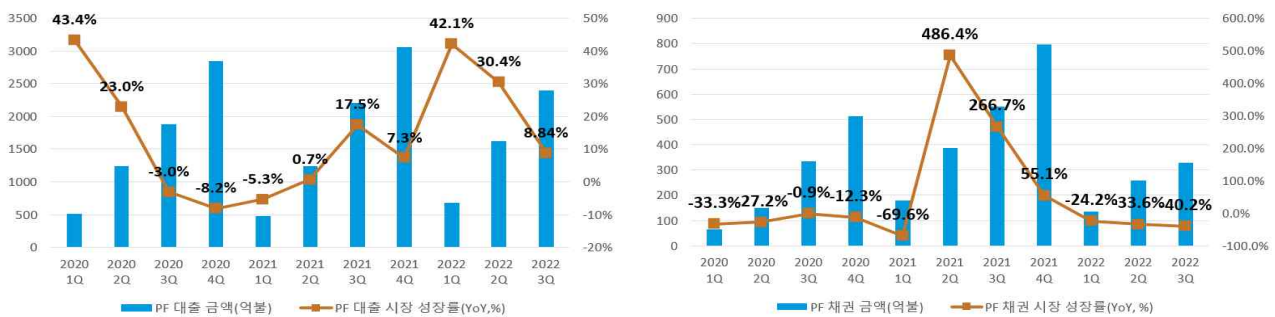
□ COVID-19 이후 반등한 PF 시장의 성장세는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역기저효과에 따라 감소함

○ (성장세 감소) PF 대출 시장의 성장세는 감소*, PF 채권 시장의 하락 폭은 커지고** 있음

* '22년 PF 대출 시장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 1Q, +42.1 → 2Q(1H), +30.4 → 3Q, +8.84

** '22년 PF 채권 시장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 1Q, -24.2 → 2Q(1H), -33.6 → 3Q, -40.2%

【최근 3년 PF 대출 시장 및 금액 및 성장률(좌) 및 PF 채권 시장 금액 및 성장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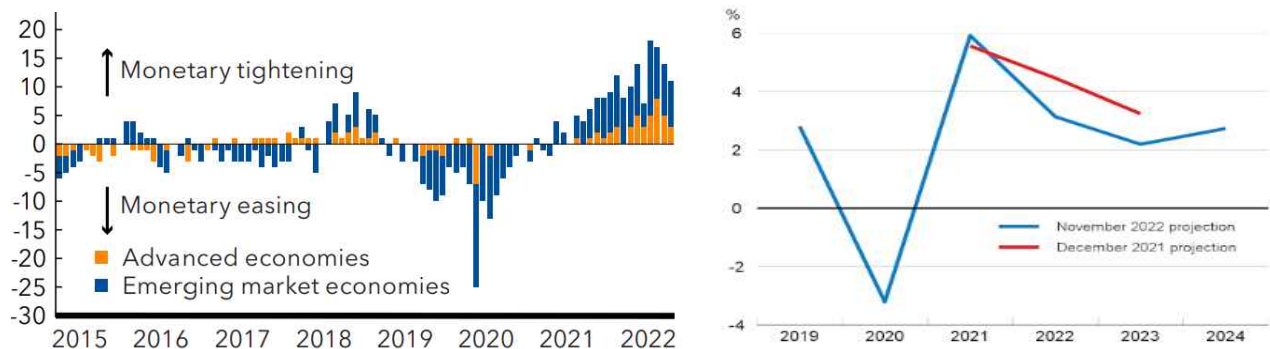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PFI

○ (경기둔화 우려) PFI는 글로벌 정책금리 인상*** 및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PF 시장의 거래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힘

*** Foresight Solar Fund는 운용하는 UK 레버리지 태양광 포트폴리오 투자 시의 할인율(이자)을 6%p 인상(1%→7%)(PFI, 22.11)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화 추이(실질, 좌) 및 OECD 경제성장률 전망(% , 우)】



* 출처 : IMF, OECD

4) 할인율과 자산의 현재가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참고할 공식은 「현재가치 = 미래가치/(1+할인율)^{시간(년)}」

□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정 공종중심으로 PF가 집중됨.
또한, 추후 큰 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시장 관련 투자 및 수주 증가가 기대됨

○ (특정 공종 선호) 에너지 가격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 다각화,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등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오일&가스 공종 및 전자통신 공종중심으로 PF가 활발히 일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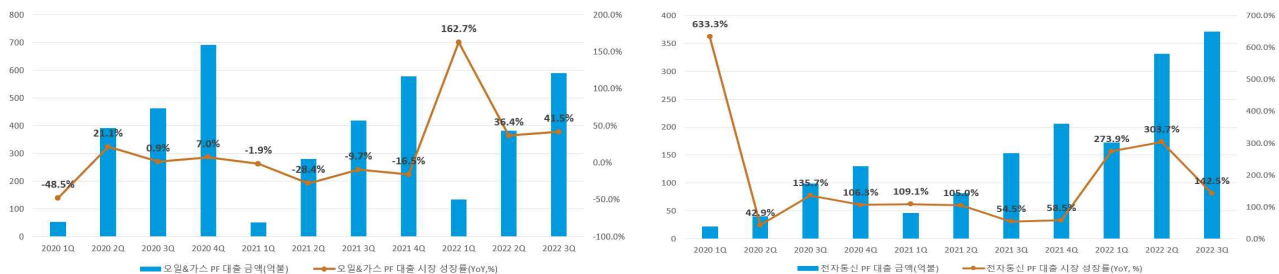
* 데이터 센터, 광통신망, Telecom 타워 등 전자통신 공종에 해당하는 디지털 인프라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하며,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AI 등 미래 이슈에도 대응이 가능함(PFI, 22.06)

- 유럽이 러시아 외 가스공급 대체 국가를 모색함에 따라 미국 LNG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Plaquemines LNG(132억불), Corpus Christi LNG project(15억불) 등의 계약을 체결하며 PF 대출 순위 1위*를 차지함

** ' 21년 PF 순위(억불) : 미국(623억불, 200건) - 사우디(335억불, 11건) - 호주(305억불, 66건) - 영국(234억불, 40건)

' 22년 PF 순위(억불) : 미국(681억불, 143건) - 호주(318억불, 50건) - 사우디(172억불, 4건) - 영국(157억불, 25건)

【최근 3년 오일&가스 PF 대출 금액 및 성장률(좌) 및 전자통신 PF 대출 금액 및 성장률(우)】



* 출처 :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각호, PFI

○ (큰 규모 발주 기대) PFI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작년에 큰 규모의 PF 대출 재원의 사업을 체결하며 PF 대출 순위 2위에 랭크된 국가로, 올해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는 국가임

- 중동 최고 권위의 경제지 MEED에 따르면, 사우디는 네옴(5,000억불) 등 7,190억불 규모의 사업들을 발주할 계획*** (붙임2. 참조) 발표함. 이에 따라, 사우디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기 발주금액은 298억불로 그 중 한국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약 40억불(13.4%) 규모임(MEED, 7.27)

-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은 오일머니 유입 등 발주 여건이 개선된 점을 토대로 향후 기업에 수주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11.14 기준, 중동지역의 수주금액은 74억불(29.0%)로 2위이며, 해외건설 누계(9,252억불) 기준으로는 1위(52%)임. 또한, 입찰참여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이루어져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중(11.17, 해견협 글로벌사업지원실)



- 국문 자료

- 김채호. 2015.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 분석 및 경감방안
- 김상만. 2011.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위험요소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 해외건설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2022. '22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및 전망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2022. '22년, '23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 Deloitte. 2022. 글로벌 건설강자 2021

- 영문 자료

- ENR. 2017-2022. The Top 250
- IMF. 2022.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 OECD. 2022. Economic Outlook November
- PFI. 2018-2022.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1Q~4Q)
- PFI. 2022. ISSUE 727~733
- PFI. 2022. PFI Legal Report 2022
- PFI. 2022. Global Infrastructure Report
- MEED Projects. 2022. H1 2022 GCC Projects Review
- MEED Projects. 2022. Middle East & Africa Construction Industry Trends
- MEED Projects. 2022. The KSA Giga Projects Programs

- 데이터베이스

- MEED(<https://meed.com>)
- MEED Projects(<https://premium.meedprojects.com>)
- Refinitiv(舊 Tompson Reuters) (<https://workspace.refinitiv.com>)
- Global data (<https://www.construction-ic.com>)
-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sta/sta_0101.php)

붙임 1. 최근 10년간 글로벌 PF 시장 규모 및 ENR 매출 현황

- (글로벌 PF 시장 현황) PFI에 의하면, 주요 글로벌 상업은행의 PF(Loans) 시장 규모는 최근 10년('12~'21) 연평균 2,596억불 수준임
- (ENR 매출 현황) ENR에 의하면, 상위 250개 기업의 최근 10년('12~'21) 건설 매출액(국내+해외)은 연평균 15,777억불 수준(해외, 4,806억불)
- (우리 해외건설 PPP 수주 현황)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최근 10년('12~'21) PPP(개발형 사업) 수주액은 연평균 15억불 수준(도급, 420억불)

【글로벌 PF 등 시장 현황 (단위: 억불,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30
PF 규모	1,987	2,040	2,602	2,777	2,365	2,296	2,877	3,103	2,850	3,058	2,730
총매출 (해외 매출)	13,246 (5,111)	14,155 (5,440)	14,308 (5,215)	13,975 (5,001)	13,961 (4,681)	15,255 (4,824)	16,350 (4,873)	17,602 (4,731)	18,259 (4,203)	20,657 (3,978)	-
PPP 수주액·비중 (도급 수주액)	23.04 (649)	25.03 (652)	21.63 (660)	13.52 (461)	0.90 (282)	16.45 (290)	11.93 (321)	18.18 (223)	6.31 (351)	31.28 (306)	10.14 (268)

【글로벌 PF 등 시장 추이 (단위 : 억불, %)】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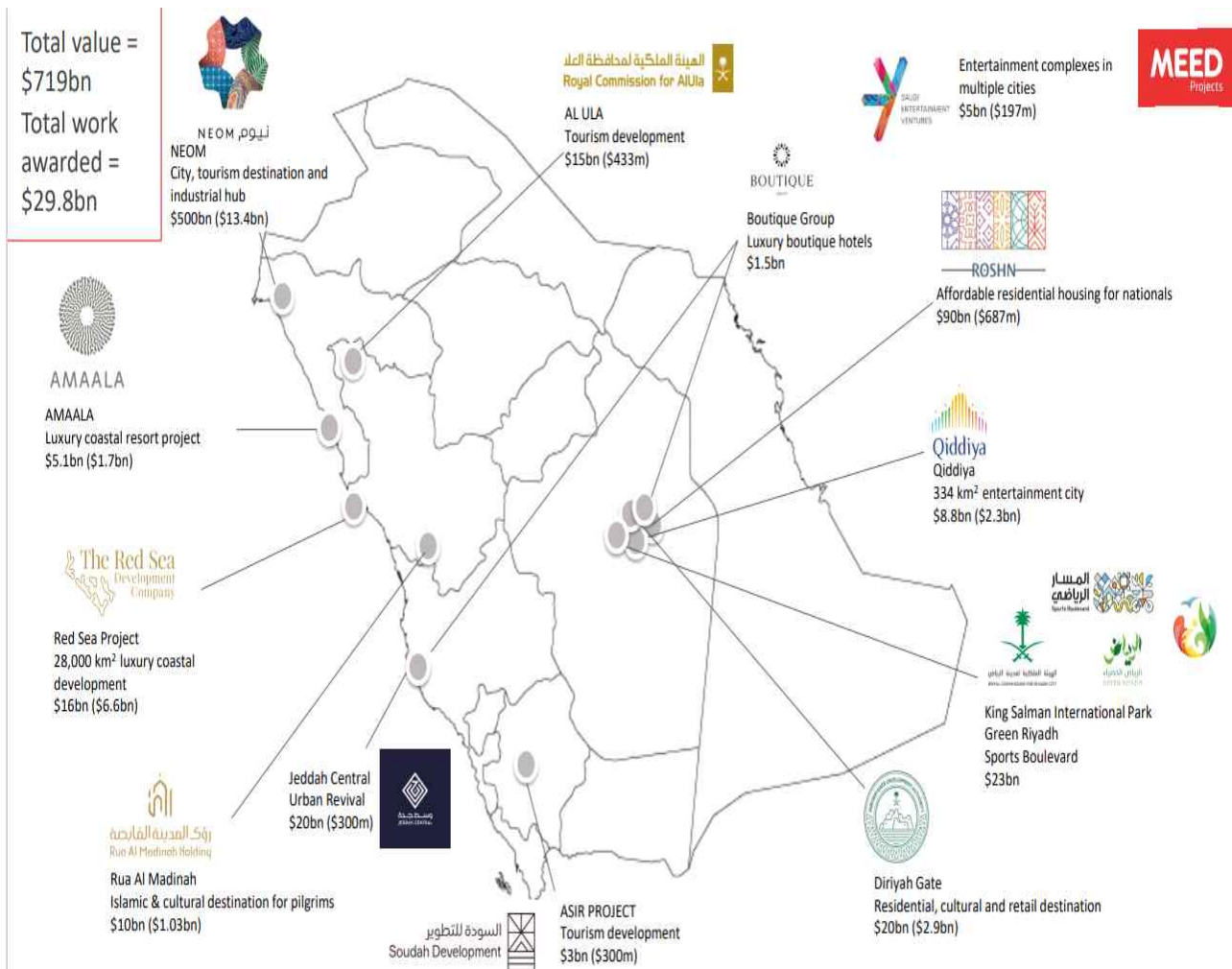
중동지역 대규모 사업 현황 등

1. 사우디

□ 네옴(5,000억불) 관련 프로젝트 입찰*이 건축, 교통, 발전 등의 인프라 부문에서 본격화 되고 있음. '23년부터 네옴 시티 관련 발주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 네옴 외에도 한미글로벌이 로쉰(6.8억불), 디리야(29억불) 등 기타 대규모 사업 관련 PM 용역을 수주한 바 있어 다른 사업의 입찰 규모 증가도 예상됨

* 현재 약 500억불 수준의 프로젝트 입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AECOM, 벡텔, Parson과 한미글로벌 등이 주요 PM 컨설턴트로 선정된 후 주요 항만, 터널 공정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삼일PwC경영연구원, 22.11)

【네옴 등 사우디의 대규모 사업 현황】



주) 각 사업 하단의 금액(\$, billion)은 총 발주금액(현재까지의 기 발주금액)을 나타냄

* 출처: : MEED Projects

【MENA 지역 대규모 사업 발주 리스트 중 사우디 사업(예정사업 포함)】

Project	Country	Industry	Value (\$m)
NEOM – NEOM City	Saudi Arabia	Construction	314,919
NEOM – NEOM City: The Line	Saudi Arabia	Construction	128,669
KA-CARE - Nuclear Power Reactor	Saudi Arabia	Power	33,550
JEC - Jeddah Economic City	Saudi Arabia	Construction	28,287
AtomSroyExport - El Dabaa Nuclear Power Plant 4800 MW	Egypt	Power	27,005
Aldar Properties - Yas Island Development	UAE	Construction	23,592
RCRC - Green Riyadh	Saudi Arabia	Construction	22,518
Sonelgaz - Renewable Energy Program 22000 MW	Algeria	Power	22,400
OQ/ICE/Enertech - 25GW Green Fuels Project	Oman	Chemical	20,000
ACUD - Entertainment District in Egypt	Egypt	Construction	20,000
CWP - Project AMAN : Wind Power Plant	Mauritania	Power	20,000
NMDC - Chabahar Petrochemical Complex (Mokran)	Iran	Chemical	19,840
Ministry of Housing - Dahiyat Al-Fursan	Saudi Arabia	Construction	19,650
Eagle/CCD - Abuja Centenary City Development	Nigeria	Construction	18,460
LAPSSSET - Ethiopia Transport Corridor	Kenya	Construction	18,447
ROSHN - Sedra District Community Homes	Saudi Arabia	Construction	18,382
Palm Hills Developments - Badya in 6th of October	Egypt	Construction	17,496
Duqm Development - Duqm New Town	Oman	Construction	17,281
Xlink - Morocco-UK Power Project: 7000 MW Solar Power Plant in Morocco	Morocco	Power	16,345
Shamiyah - Haramin Access Project: Mecca Gate	Saudi Arabia	Construction	16,150

* 출처: MEED Projects

【사우디 대규모 사업 수주금액별 기업 순위 (단위: \$m)】



* 출처: MEED Projects

2. 그 외 중동시장

-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국가 역시 발주 여건이 개선되어 건설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석유화학 및 물 분야 등 친환경 산업 발주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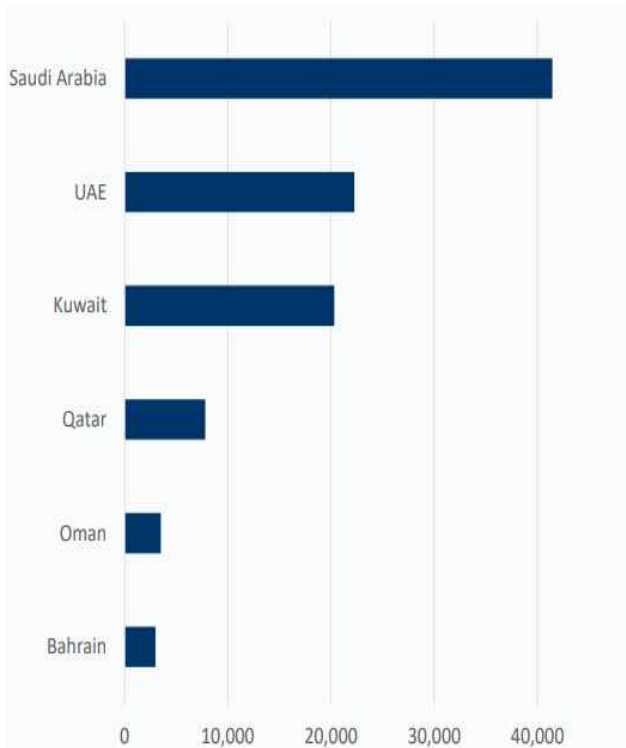
*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IHS Markit(22.10)에 따르면, 중동 건설시장은 지난 전망치(10.2% 성장) 대비 1.8%p 상향 조정됨

【GCC 건설시장 성장률(실질, %)】

국가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UAE	4.39	3.84	4.19	3.83	3.82	3.85
쿠웨이트	33.11	14.28	4.34	4.20	3.80	3.50
사우디	1.26	3.23	3.48	4.52	4.37	4.11
카타르	1.61	2.32	2.79	4.11	4.00	3.55
바레인	0.80	4.00	4.53	4.26	4.21	4.19
오만	-8.27	3.37	4.36	4.28	4.15	4.20
평균	5.48	5.17	3.95	4.20	4.06	3.90

* 출처: Global Data

【입찰 과정 중인 GCC 프로젝트 국가별 금액(\$m, 좌) 및 주요 프로젝트(역불, 우)】



프로젝트명	국가	공종	금액
카타르가스 북부 가스전개발	카타르	가스	50
쿠웨이트 민자사업청 해수담수화 발전 플랜트	쿠웨이트	발전 (친환경)	40
쿠웨이트 통합석유회사 석유화학복합플렉스 : 패키지 2	쿠웨이트	석유화학	40
쿠웨이트 통합석유회사 석유화학복합플렉스 : 패키지 1	쿠웨이트	석유화학	40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Hali&Ghasha Sour 가스전 개발	UAE	가스	30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Mirfa 해수처리 플랜트	UAE	물 (친환경)	25

주) 상기 제시된 수치와 프로젝트는 H1(7.27 발간) MEED Projects 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 출처: H1 2022 GCC Projects Review, MEED Project(2022)

붙임 3. 최신 해외건설 보고서 소개 「글로벌 건설강자 2021」

※ 본 정보는 최신 해외건설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Deloitte의 「글로벌 건설강자 2021」의 일부 내용을 수록함. 전문을 보기 원하실 경우 Deloitte 홈페이지⁵⁾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내용(해외건설 매출 중심)】

- 글로벌 컨설팅펌인 Deloitte가 최근(22.09) 발표한 글로벌 건설강자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건설기업(상위 30위)의 해외 매출은 2,187억불인 것으로 파악됨
 - 이들 주요기업의 전체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은 14.9%로 최근 3년간 추이로 보면 꾸준히 감소한 수치*임
- * 총매출 대비 해외매출 비중(* 19년~* 21년, %) : * 19년, 19→ * 20년, 17→ * 21년, 15
-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각종 지정학적 이슈에 의한 공급제약은 건설사들에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해외 매출기준, 해외사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스페인의 ACS(294억불)이며 그 뒤를 프랑스 VINCI(273억불), 프랑스 BOUYGUES(177억불), 오스트리아 STRABAG(155억불), 중국 CCCC(147억불) 순으로 Top 5가 형성됨
 - 국가별로 보았을 때, 유럽 기업군이 56%로 해외건설사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약 34%의 해외 매출 평균 비중을 보임
- 유럽기업은 자본지출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및 국제화에 성공함. 반면, 미국기업은 국내 주택시장을 선호했으며, 아시아 기업은 국가마다 다른 전략을 보여 주었지만 부채 비율이 높았음
 - 유럽기업은 높은 Capex 비율 및 안정적인 EBIT 마진율(비건설 활동 중심)을 보여주었고, 미국기업은 낮은 Capex 비율 및 높은 EBIT 마진율(건설 활동 중심)을 기록함
 - 한편, 아시아기업은 중간 정도의 EBIT 마진율 및 Capex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높은 부채 비율을 보여줌

【분석 대상】 주요기업의 연례 보고서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보고서

* 출처: 글로벌 건설강자 2021, Deloitte(2022)

5)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consumer/articles/2022/20220901.html>